

세계 경제 동향

- 미국, 7월 소비자물가 3.4%, 생산자물가 4.7% 상승 ■ '26-8-12; '26-8-13 미국 노동통계국
 - 미국 7월 소비자물가지수(CPI)는 전월대비 0.1% 상승(6월 -0.4%), 전년동월대비 3.4% 상승해 전월(3.5%)보다 오름세 소폭 둔화. 생산자물가지수(PPI)는 전월대비 포함, 전년동월대비 4.7% 상승
 - 물가 상승 둔화는 에너지가 주도. 에너지 부문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는 전월대비 각각 1.5%, 3.1% 하락. 다만 전년동월대비 에너지 부문 소비자물가는 14.7% 상승해 높은 수준 지속
 - ❖ 미국 물가 둔화가 에너지 가격 하락에 크게 기인한 만큼, 유가 반등 시 곡물·가공식품 등 농식품 물가로 전이될 가능성 점검 필요
- IEA, 2026년 세계 석유 수요 감소 전망 ■ '26-8-12 국제에너지기구
 - 국제에너지기구(IEA)는 「석유시장 보고서(Oil Market Report)」에서 2026년 세계 석유 수요가 전년대비 160만 배럴/일 감소할 것으로 전망
 - 7월 세계 석유공급은 1억 150만 배럴/일로 전년동월대비 630만 배럴/일 낮은 수준. 걸프 지역에서는 여전히 830만 배럴/일 규모의 생산이 중단된 상태
 - 7월 세계 석유 재고는 6,900만 배럴 감소해 79억 배럴을 하회. 미·이란 전쟁 발발 이후 누적 4억 1,000만 배럴(평균 270만 배럴/일) 감소
 - ❖ 걸프 지역 생산 차질과 재고 감소가 지속되는 만큼, 유가 재급등에 대비한 농자재 비용 부담 완화 방안 점검 필요

국내 경제 동향

- 7월 이후 원/달러 환율 큰 폭 하락 ■ '26-8-13 한국은행
 - 원/달러 환율은 8월 11일 1,416.0원으로 6월말(1,549.4원) 대비 큰 폭 하락. 국내 외환시장 수급 개선, 미 연준의 금리인상 기대 약화 등에 따른 미 달러화 약세가 배경
 - 7월중 원/달러 환율의 변동성은 일평균 8.0원으로 전월(7.6원)보다 소폭 확대
 - 한편, 7월중 외국인 국내 증권투자자금은 216.5억 달러 순유출
 - ❖ 원화 강세는 수입 농자재 부담을 완화하는 요인이나 농식품 수출 기업에는 부담으로 작용하므로, 종합적인 점검 필요
- 7월 수입물가 전월대비 1.0% 하락, 전년동월대비 18.7% 상승 ■ '26-8-14 한국은행
 - 7월 수입물가지수(원화기준)는 원/달러 환율과 국제유가*가 내리며 전월대비 1.0% 하락. 다만 전년동월대비로는 18.7% 상승해 높은 수준 지속
 - *두바이유 월평균 (6월) 79.45달러→(7월) 76.75달러, 원/달러 월평균 (6월) 1,527.30원→(7월) 1,497.43원
 - 용도별로는 중간재가 석탄·석유제품(전월대비 -3.9%)·1차금속제품(-3.8%)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2.2% 하락한 반면, 원재료는 천연가스(+24.8%)가 오르며 0.8% 상승
 - 수입 농림수산품은 전월대비 0.1%, 전년동월대비 16.3% 상승. 품목별로는 커피가 전월대비 8.1% 상승한 반면 쇠고기는 전월대비 6.0% 하락
 - ❖ 환율·유가 하락에도 수입 농림수산물 물가가 전년동월대비 16.3% 상승세를 지속하는 만큼, 사료·식품원료 수입 부담 완화 대책 점검 필요

세계 농업·농정 동향

○ FAO, 7월 세계식량가격지수 전월대비 0.6% 상승 | '26-8-7 FAO

- 7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31.1p로 전월(130.3p) 대비 0.6% 상승하며 2개월 연속 하락 후 반등. 지정학적 긴장 재개와 기상 악화가 주요 상승 요인
 - (곡물 +3.4%) 흑해 지역 밀 수출 차질,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에너지 가격 강세가 옥수수 가격을 끌어올리며 지수 상승
 - (유지류 +2.0%) 국제유가 상승과 견고해진 바이오디젤 수요 등이 팜유와 대두유 가격을 끌어올리며 지수 상승
 - (육류 -2.8%) 브라질 가금육과 EU 돼지고기의 원활한 공급 확대, 아시아 쇠고기 수입 수요 약화로 지수 하락
 - (유제품 -0.7%) EU·오세아니아의 원활한 분유류 수출과 EU산 버터의 수출 확대에 지수 하락
 - (설탕 +5.6%) 기상 악화에 따른 EU·아시아의 작황 우려, 브라질 사탕수수의 에탄올 전환 확대 전망으로 지수 상승
- ❖ 국제 곡물·유지류 가격이 동반 상승한 만큼, 사료·식품 원료 수입가격 전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필요

○ 일본, 구마모토 지진 피해 농지·농업시설 복구 지원조치 시행 | '26-8-7 일본 농림수산성

- 일본 정부는 '26년 구마모토 지진에 따른 재해를 격심재해*로 지정하고, 관련 지원조치를 의결·공포·시행
 - * 재해복구사업의 국가보조율을 높여 지자체 재정부담을 덜어주는 제도
- (농림수산성 소관 재해복구사업 국가보조율 상향 조치)
 - 공공토목시설 71%→84%, 농지·농업용시설·임도 86%→97%, 농협 소유 창고 등 공동이용시설 20%→50%
- ❖ 지진 피해가 일본 농업 부문 수급·교역에 미칠 영향과 복구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

국내 농업·농정 동향

○ 기후위기 대응 '재해2법' 개정법률 8월 15일 시행 | '26-8-13 농림축산식품부

- (농어업재해보험법* 개정사항)
 -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과거 대비 상위 10분위 초과 시 → 해당 손해를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
 - 손해평가인 정기교육 강화, 손해평가 결과 적정성에 대한 조사 근거 마련
 -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→ 손해평가인 교체 요구 가능
 - 재해 발생빈도·피해정도 등에 대한 전문기관 실태조사 근거 신설
 - 보험상품별 기준가격 및 수확기가격 정부 공시
 - * 가입 농가가 보험료를 내고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받는 제도
- (농어업재해대책법** 개정사항)
 - 재해 범위에 지진과 이상고온 추가, 이상고온에 따른 병해충도 국가지원 재해 대상에 포함
 - 피해규모, 중앙·지방정부 지원현황, 농가 정책만족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신설
 - 정부가 재해지역 농가에 피해사실 신고방법을 알리도록 의무화
 - 재해복구 지원 확대: (기존) 재파종·재정식 비용 → (개정) 재해 발생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
 - ** 피해 농가에 국가·지자체가 복구비·생산비를 지원하는 제도(보험 가입 여부 및 품목에 따라 차등 지원)
- ❖ 기후위기에 대응한 재해보험과 재해대책을 아우르는 경영 안전망 강화와 함께 농가 대응역량 제고 필요